

이정호 광주FC 감독 “아직까지 만족되지 않아”

수원FC에 1-0 승... 2연승
“선수들도 만족스럽지 않을 것”



2전 3기. 광주FC가 올 시즌 수원FC를 상대로 세 차례 맞대결 끝에 승리를 쟁겼다. 특히 지난주 대구 원정에 이어 두 경기 연속 무실점, 그리고 승리를 챙겨 더 뜻깊은 경기가 됐다. 하지만 이정호 감독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더 발전하는 팀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광주는 지난 2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수원과 하나은행 K리그1 2024 25라운드 홈경기에서 1-0 신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광주는 올 시즌 11승 1무 13패(승점 34)를 기록하며 7위를 유지했으나 5위 수원(12승 5무 8패·승점 41)과 격차를 7점으로 줄이는데 성공했다.

이정호 광주 감독은 이날 경기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상당히 덥고 습했다. 경기하기 힘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승리를 했다”며 “선수들이 집중력과 체력 문제를 드러내긴 했지만 끝까지 잘 지켜서 결과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해 주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광주는 지난 라운드에서 대구에 1-0 승리를 거둔 뒤 이날 경기 역시 수원에 1-0 승리를 거뒀다. 올 시즌 첫 연속 무실점이



광주FC 이정호 감독이 지난 27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수원FC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25라운드 홈경기에서 1-0 신승을 거둔 뒤 팬들과 함께 승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자 무실점 연승이다. 올 시즌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수비도 어느 정도 안정화된 모양새다.

이 감독은 “두 경기를 무실점으로 승리했지만 아직까지 만족되지 않는다”며 “오늘 경기를 복기하면 선수들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팀은 더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보완점으로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를 꼽았다. 상대 소유권을 탈취한 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섬세한 플레이가 나오지 못해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 이번 라운드를 마친 뒤 시작되는 휴식기에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보완할 전망이다.

그는 “공을 뺏아서 공격 전환을 할 때 실

수가 나온다. 마무리 패스에서 세밀함이 떨어진다”며 “다음 경기에서는 실책을 줄였으면 좋겠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선수들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한 부분은 칭찬하겠지만 미흡했던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호연은 이날 경기에서 경기 지연 행위로 경고를 받으면서 휴식기를 마친 뒤

인 다음 달 9일 열리는 전북현대모터스와 원정 경기에 출장하지 못한다. 올 시즌 25경기에 모두 출장한 핵심 자원이 결장하면서 광주에게는 새로운 시험대가 등장했다.

이 감독은 “정호연에게 큰 휴식을 줘야 할 것 같다. 경고 누적으로 전북전을 결장하는데 그동안 정말 고생했다”며 “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뛰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한다. 남은 선수들과 잘 준비해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한편 김은중 수원 감독은 이날 경기력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남겼다. 경기를 계획대로 풀어나가지 못했고, 이른 시간에 선제 실점하면서 경기 운영에 지장이 생겼다는 평가다.

김 감독은 “선수들이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뛰어줬지만 우리가 준비한 대로 경기를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이 또한 우리가 매 경기하면서 발전해야 하는 부분이다. 가용 자원이 적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휴식기 동안 회복 잘 해서 잘 준비하겠다”고 총평했다.

이어 “광주의 공격 패턴이나 스타일을 선수들에게 다 인지시켜주고 대비 훈련도 했지만 결국 그런 상황에서 선제골이 나왔다. 부분에서 선수들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싶다”며 “잘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점하면서 급해진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규빈 기자

‘대포 평·평·평’ KIA, 키움에 체면 세웠다

4-3 역전승... 1승 2패



‘단독 선두’ KIA타 이거스가 ‘최하위’ 키움히어로즈에 주말 3연전 초반 두 경기를 연달아 내주며 자존심을 구졌지만 마지막 맞대결에서 극적인 역전승으로 체면치레를 했다. 8회초와 9회초 홈런 세 방만으로 경기를 뒤집으며 확실한 화력을 선보였다.

KIA는 28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키움과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8차전에서 4-3 역전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최근 3연패에서 탈출한 KIA는 올 시즌 60승(2무 38패·승률 0.612) 고지에 가장 먼저 올랐다.

앞서 26일 6차전에서 4-5, 27일 7차전에서 5-6으로 연패에 빠지며 루징 시리즈를 확정 지었던 KIA는 마지막 맞대결에서 승리를 챙기며 자존심을 세웠다. 특히 60승 고지에 선착하면서 76.5%의 정규

시즌, 61.8%의 한국시리즈 우승 확률(단일리그 기준)을 거머쥐었다.

KIA는 선발 등판한 양현종이 6이닝 3실점(비자책)으로 퀄리티스타트를 챙기는 등 좋은 투구 내용을 보였지만 좀처럼 타선이 터지지 않고 있던 상황에서 홈런 세 방으로 승부를 뒤집었다.

특히 2사 후 집중력이 빛났다. 0-3으로 뒤진 8회초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이창진이 볼넷을 골라 출루했고, 최원준이 양지율의 3구째 139km 직구를 공략해 우월 홈런으로 연결하며 두 점을 따라붙였다.

이어 2-3으로 뒤진 9회초 마지막 공격에서 최형우가 땅볼, 소크라테스가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나며 패색이 짙었으나 김선빈이 김성민의 초구 135km 투심을 때려 좌월 홈런으로 연결, 동점을 만들었고 후속 타자 변우혁이 다시 김성민의 초구 135km 투심을 때려 좌중월 담장을 넘기며 백투백 홈런으로 극적인 역전승을 완성했다.

한규빈 기자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 20년만에 대통령기 우승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팀이 20년만에 대통령기 전국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김백수 감독이 이끄는 순천시청 소프트테니스팀은 지난 27일 경기 안성맞춤국제소프트테니스장에서 열린 ‘제62회 대통령기 전국소프트테니스대회’ 남자일반부 단체전 결승에서 음성군청을 경기스코어 2-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순천시청은 1경기 복식에 출전한 류태우-임민호가 음성군청 박환-이요한을 상대로 압도적인 기량을 펼치며 5-2 승리로 기선을 잡았다. 이어 2경기 단식에 나선

이하늘이 황보은을 만나 역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4-1로 꺾고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이로써 순천시청은 2004년 제42회 대회 이후 20년 만에 대통령기 단체전 우승과 함께 올시즌 3월 회장기에 이어 2관왕을 달성했다.

순천시청 류태우는 혼합복식, 남자복식에서도 우승을 일궈 대회 3관왕에 올랐다. 이하늘은 남자복식 우승으로 2관왕을 차지했고, 혼합복식에선 준우승을 차지했다.

최동환 기자



광주대 여자 농구 선수단이 지난 26일 경북 상주체육관에서 열린 제40회 MBC배 전국대학농구 여대부 결승에서 단국대를 68-58로 꺾고 우승한 뒤 우승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광주대 제공

광주대 女농구, 6년 만에 ‘MBC배 전국대학농구’ 정상

결승서 단국대 68-58 격파
‘맏언니’ 유이비 MVP 선정

광주대 여자 농구부가 제40회 MBC배 전국대학농구에서 우승 행가래를 쳤다. 지난 2018년 이 대회 우승 이후 6년 만이자 팀 통산 7번째 MBC배 정상에 올랐다.

광주대는 지난 26일 경북 상주체육관에서 열린 여자 대학부 결승전에서 단국대를 68-58로 꺾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광주대는 이번 우승으로 지난 2010년과 2013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에 이어 7번째 MBC배 정상에 올랐고, 6년 만에 이 대회 우승의 기쁨을 만끽했다.

광주대 양유정과 임교담은 이날 결승에서 나란히 20득점을 과시하며 승리를 이끌었다. 팀의 맏언니 유이비는 결승서 12득점 7리바운드 6어시스트 6스틸 등 공수에 걸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쳤다. 단신가드 정채련도 7득점 12리바운드 11어시스트로 힘을 보탤었다.

광주대는 이번 대회 예선리그와 마찬가지로 이날 결승에서도 단국대에 리바운드 수에서 33-49로 크게 뒤졌지만, 야투 성공률(42%-31%)과 속공점수(27-16)에서 상대를 압도하며 10점 차 완승을 거뒀다.

전반을 39-39로 팽팽히 맞선 양팀의 승부는 3쿼터 시작과 함께 양유정의 돌파와 임교담의 속공 등을 앞세워 56-43까지 달아난 광주대 쪽으로 쉽게 기울어졌다.

하지만 단국대는 4쿼터 들어 류가형의 잇단 3점포로 58-56, 2점 차까지 턱밑 추격하며 경기는 다시 접전 양상으로 돌변했다.

위기에 봉착한 광주대는 이때부터 악착같은 수비로 상대를 무득점으로 묶고 임교담, 양유정, 정채련이 연속 득점을 가동하며 다시 66-56으로 달아난 뒤 공격제한 시간을 모두 소비하는 노련한 경기운영으로 상대의 추격을 따돌렸다.

광주대는 이번 대회 우승과 함께 개인상도 휩쓸었다. 유이비가 대회 MVP와 어시스트상을 수상했고 양유정이 득점상을 받았다.

국선경 감독은 최우수감독으로 선정됐다.

최동환 기자